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광주시장·전남도당 위원장 인터뷰

“총선승리·정권창출 광주가 변화·혁신 주도” “재정 공개 등 진정한 권리당원 시대 열겠다”

박해자 시장위원장

“2016년 총선 승리와 2017년 정권 창출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광주에서부터 만들 것입니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의 첫 여성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해자(서구 갑)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 정신인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 한반도 평화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독주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화와 혁신을 결의하고 실천해 이번 2·8 전당대회를 제3기 민주정부 수립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광주는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과 민주화투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2002년 3월 16일 광주의 역사적 선택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면서 “광주는 그동안 정권창출의 핵심이자, 전진기지였던 만큼 다시 한번 광주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를 주도하고, 패배주의를 극복한다면 2016년 총선 승리와 2017년 정권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이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광주시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와 흐름을 광주에서부터 만들기 위해 ▲계파와 노선을 초월한 광주정신으로 하나되는 광주시장 ▲당원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당원·시민을 섬기는 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단체, 광주시가 참여

하는 당정협의 정례화 및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임 박 위원장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과 전남도 복지여성국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황주홍 도당위원장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투명한 전남도당, 상식과 순리의 전남도당, 진정한 당원 중심의 권리를 복원한 전남도당 건설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신임 전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된 황주홍 의원은 18일 당선 인터뷰에서 “새 전남도당 건설과 중앙당의 혁신을 바라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여러분의 열망이 저를 선택 해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도당은 그동안 당비만 수령해 갔을 뿐,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앞으로 ‘도당 월간 소식지’를 발간해서 돈 사용 내역을 낱알이 공개하고 공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당직 선거 투표권을 당원들에게만 드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당원들이 당 재정 운용을 비롯한 주요 당무를 매일 보고받고 결재하도록 하겠다.”며 “진정한 권리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위원장은 “중앙당으로 오는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도당에서도 받아오도록 하고 중앙당 연구 기능을 부활하기 위해 중앙당 연구원을 유지하겠다”며 “일본의 ‘마쓰시다정경의숙’ 같은 ‘지방정치 아카데미’를 1년 내내 상설 운영, 전남이 전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8일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국 당원들의 교육과 훈련의 요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새 전남도당이 중앙당을 견인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모든 지역에서 승리하고,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황 위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석·박사를 거쳐 미주리대 정치학과 교수를 지냈다. 이후 아태평화재단 기획조정실장과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강진군수로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낸 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휴지기’ 끝낸 안철수, 호남서 정치재개 시동

전남·광주 대의원대회 참석 문병호·주승용 후보 응원

전대 영향 주목... 옛 동지들과 관계 회복·민생행보 나서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패배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정치적 사수 기간을 거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그동안 2·8 전당대회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며 다른 지역의 후보 합동연설회에는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안 의원이 18일 첫발을 내딛고 광주·전남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함에 따라 향후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와 전남 시도당 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자신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병호 최고위원 후보를 응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문 후보, 주승용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서 못 오다가 이번엔 처음으로 시간이 맞아서 시도당대회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제가 공동대표 시절 어려운 비서실장 역할을 충실히 해준 문 후보와 사무총장으로 고생한 주 후보의 유세를 들어보고 박수도 쳐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에 대한 지원이 현역 의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를 금지한 당 혁신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오늘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자 왔다. 어려울 때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준 동지”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데 걱정”이라며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전당대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경선을 묻는 질문에는 “전직 대표이다 보니 사실 이번엔 어느 한분 지원하거나 지지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당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혁신

하고 국민 관심을 얻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호남 방문 배경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우리 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앙당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기도 하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 당명 개정 움직임이 일자 미국 방문중 즉각 성명을 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당안팎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또한, 한때 소원해진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좌담회도 여는 등 옛 동지들과의 관계 회복도 꾀하고 있고, 최근 6개월 만에 언론 인터뷰도 재개해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15일엔 지역구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연탄배달 봉사하는 민생 행보도 이어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잊혀진 야당

가마솥 안 개구리 같다”

‘국정자문회의’ 원로들 쓴소리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는 무기력한 제1야당의 현주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순철 전 경제부총리(광주비엔날레 이사장)는 “야당에 지구를 안 날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폈다. 전 부총리는 “국민은 먹고살기 바빠 ‘진보나 보수냐’에 관심이 없는데 ‘건전한 진보’를 위해 당을 새로 만든다는 소리가 튀어나오질 않나...”라며 “정책연구원을 동원하든 해서 당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정치연합을 ‘대위치는 가마솥 안의 개구리’에 빗대 ‘짜지거 없는 패거리 정당의 모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문호 개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주요지지층 50대마저 등돌려

한국갤럽 설문, 지지율 35%... 집권 후 최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5%였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5% 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대별로 보면 긍정적 평가는 60대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43% ▲40대 32% ▲30대 20% ▲20대 13%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는 2030세대에서 70%를 넘었다. 특히 50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률(43%)보다 부정률



(50%)이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9%로 가장 높았고 ‘인사문제’(13%),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11%) 등이 뒤를 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남녀기발.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